

## 송민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감정적 대응 말아야"

NEWSIS( ) | 기사입력 2010-04-16 15:01



【서울=뉴스시스】 조현아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한국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토론회를 열고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우리도 감정적 주장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역사적 자료와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인적·물적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제도 정비와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가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독도문제가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어 한일관계에 불투명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세계적이 여론을 선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정치, 일본, 세계를 향한 혼합된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에서 해결책을 찾기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한·일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교육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왜색문화' 공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일본문화를 다문화의 하나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사회에서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는 반일 민족주의가 대두되지 않도록 여론조성과 사회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권숙인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등이 참석했다.

hacho@newsis.com

---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3191313>

---

인쇄하기 취소